

北 핵시설 연내 불능화 재확인

■ 베이징 6자회담 개막

핵 프로그램 투명 신고가 관건

中 내일 합의문 초안 회람 전망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27일 오후 4시(현지시간)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참가국 대표단은 이날 개막식을 겸한 전체 회의를 갖고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 등 비핵화 2단계의 구체적 방안과 이에 상응해 북한에 제공할 안보적 조치 등의 내용을 놓고 집중 협의를 했다.

이에 앞서 참가국들은 남·북, 한·미, 중·러, 중·일 간 양자협의를 잇따라 갖고 이번 회담의 목표치를 조율했다.

첫날 회의에서 각국은 ▲비핵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등 8~9일에 걸쳐 개최한 5개 실무그룹 회의의 결과를 각 그룹 의장으로부터 청취했다.

30일까지 예정된 이번 회담에서 참가국들

은 연내 불능화 및 신고를 이행한다는 목표 아래 영변 5MW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 등 불능화 대상 시설들의 구체적인 불능화 방법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각국은 또 북한이 보유한 무기급 플루토늄과 핵물질 생산시설 등 일체의 핵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국인 중국은 28일부터 수석대표 회의와 양자회의를 번갈아 개최하며 쟁점소용을 시도한 뒤 29일째 합의문 초안을 회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소식통은 "구체적인 불능화 방안이나 이에 상응하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의 방법 등을 놓고 국가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단계 로드맵 도출될까=일단 정부 당국자들이 바라보는 회담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다. 제네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미가 '연내 불능화 및 신고'와 '테러지원국 지정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불능화 방법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어느 수준에서 합의문에 담느냐 등을 두고 북·미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불능화는 의견 일치(?)=신고가 관건=북·미는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를 실현하기 위해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료봉 제어장치 등 핵심부품을 빼내는 방법으로 불능화를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처리는 사람 대신 불능화 대상 시설에 접근해 작업할 수 있는 특수설비를 투입해야 하며 제염과정에 최소 4~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연내에 불능화를 완료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불능화 방법에 대한 이같은 북·미 간 합의가 6자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가 오히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연합뉴스



쫓기는 시위 군중

지난 26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미얀마 반정부시위가 10일째 접어든 가운데 27일 수도 양곤에서 군경의 시위 진압중 한 시민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반정부 시위 확산 '폭풍전야'

정부, 무장군인 투입 승려 100여명 체포...유혈 충돌

미얀마 승려들이 이끄는 반정부 평화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진 가운데 군사정부는 27일 불교사원을 급습해 최소 100명의 승려들을 체포했다고 AFP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미얀마 보안군은 이날 새벽 양곤 북쪽 모에 카웅과 느웨 카야 안 등 불교 사원 두 곳의 유리창을 부수고 땅바닥에 실탄을 발사하며 급습해 전날 시위에 참가했던 승려 100여명을 끌어들었다고 목격자들

이 전했다. 미얀마 군경은 전날 시위에서도 200여명을 체포해 지난달 19일 유가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이후 지금까지 수백명이 체포돼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FP는 전날 시위 진압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했다고 미얀마 관리와 병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얀마의 옛 수도인 양곤 북쪽 웨다곤 파고다에서 전날 가두행진에 나선 승려 2명이 군경에 맞아 숨졌으며 1명은 보안군과 몸싸움을 벌이다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의 한 소식통은 총에 맞아 숨진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곤 시내에는 전날 유혈사태 이후 상점 문을 닫고 행인도 거의 없어 거리는 위축된 듯 고요한 채 시민들은 집에서 단파 라디오를 통해 외국 언론매체의 국내 사태 보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영국-연합뉴스

유엔, 미얀마 제재 나설 듯...중은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 미얀마 당국에 유엔 특사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촉구, 국제사회의 대(對) 미얀마 제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개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미얀마 특사 파견결정을 환영하며 미얀마 당국이 조속히 특사의 입국을 허가할 것을

주문했다고 현재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장-모리스 리페르 주유엔 프랑스 대사가 전했다.

특히 잘마이 칼릴자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바리 특사파견을 지지하며 "더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희생된 후 감바리 특사가 중대 지역(미얀마)을 방문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얀마에 대한

조치가 빨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의 이런 움직임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이날 유엔 안보리에 대해 미얀마 제재 검토를 요청하고 미얀마 군부의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을 비난한 데 이어 나왔다.

한편 정부는 미얀마 유혈사태와 관련해 사태전개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현지 공관을 통해 교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가 27일 밝혔다. /유엔본부리터 AP-AFP-연합뉴스

美, 미사일 거래 北 기업 제재

6자회담 하루 전 전격 발표...돌발 변수 부상

미국 정부가 26일 중거리미사일인 북한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거래한 북한과 이란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제재조치는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돼 최근 들어 일부 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핵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미사일을 거래한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와 이란의 샤희드 핵 및 인더스트리얼그룹 및 아에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얼스 오가니제이션에 대해 행정명령 12938호(1994년 11월 14

일) 등에 의거해 지난 18일부터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KOMID는 북한의 주요무기거래회사이자,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제품 및 장비의 주요수출회사로 지목되고 있고, 이란의 두 회사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토대로 만든 이란의 사하브 미사일 생산업체로 알려졌다.

톱 케이스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KOMID에 취해진 제재조치는 기존 법적 절차에 따라 26일 관보에 게재된 것일 뿐 27일 열리는 북핵 6자회담과 시기적인 상관성은 "전혀없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회의에 앞서 활짝 웃으며 뒀가논 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러서 알루미늄관 150t 수입 시인”

북한은 2차 핵위기의 발단이 된 우라늄 농축 의혹과 관련, 과거 러시아 업자로부터 150t 안팎에 달하는 고강도 알루미늄관을 수입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러나 수입한 알루미늄관의 용도나 현재 어디에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비핵화 2단계

인 신고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6자회담에 정통한 북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초 제네바 북·미 회의에서 '연내 핵시설 불능화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관련된 핵심 의제인 우라늄 농축문제를 거론하

면서 원심분리기용 자재인 고강도 알루미늄관 150t 안팎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고 밝혔다.

알루미늄관 150t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2천600대 이상에 해당되는 양이다.

북한이 알루미늄관 수입사실을 시인한 것은 처음이며 특히 그 수량을 밝힌 것은 향후 핵 프로그램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메이징=연합뉴스

‘탈레반의 입’ 아마디 체포

아프간 발표...탈레반 ‘건재하다’ 반박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던 카리 유수프 아마디가 26일 아프가니스탄 남서부 헬만드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아프간 내무부가 27일 밝혔다.

현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프간 내무부는 아마디가 여제(26일) 헬만드주 수피안 지역에서 아프간 경찰의 탈레반 소탕작전 중 그의 동생과 함께 체포됐

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헬만드주의 경찰 책임자도 연합뉴스와 간접통화에서 아마디가 체포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탈레반의 한 지역사령관은 연합뉴스와 간접통화에서 “아마디는 현재 헬만드주에 갇혀 있으며 그의 동생도 잡히지 않았다”며 “이는 대(對) 탈레반 작전의 성과를 과장하기 위한 카불 정부(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꺾기 위해 쓰는 용어)의 정치적 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www.hanbitgoil.co.kr | 7급 공무원 시험은 한빛이 주도한다 - 수험생이 웃는 학원 한빛이 힘에 있습니다.

7급 공무원 개강 10월 1일

9급 공무원 개강 10월 1일

공무원 이론반 2주 완성 | 공무원 문제풀이 | 이구동성! 한빛이 최고!

세무직 단박반 | 기술직 단박반

전국 최강교수진은 한빛에 있다 - A.S.A.P

한빛공무원학원

234-0224

지점주소: 서울관악구학원(영등포구영등포1동2-44) | 한빛중앙학원(성동구교동로100-200)

Star1 요리학원

★ 제2기 카빙(carving) 과일조각장식·스시(초밥)수강생모집 ★

맛과 멋이 살아있는 행복한 요리교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카빙(과일조각장식) 2주 완성반
- 스시(초밥) 2주 완성반
- 김치(초밥) 2주 완성반
- 음식조식(초밥) 2주 완성반
- 생활요리(초밥) 2주 완성반
- 카빙(과일조각장식) 1주 완성반
- 스시(초밥) 1주 완성반
- 김치(초밥) 1주 완성반
- 음식조식(초밥) 1주 완성반
- 생활요리(초밥) 1주 완성반

Star1 요리학원 (062)385-0723-4